

지역 매 아리

정읍시,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13일 '2019 도시재생대학'(1단계-기본과정)이 약 한 달간의 학습 과정을 마치고 시가동 주민센터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정읍시가 쇠퇴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주도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에는 초산협의회, 마을기업(5후), 나이데, 연지시기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인 원도심 4개 단체 3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주민참여사업 발굴과 역량 강화 교육 등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과정 중 특별 벤치마킹을 통해 단체의 특성과 사업 내용에 맞는 사례(전주 삼천 도시대학협의회, 팔복추천마을, 남부시장 청년몰 등)를 답사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주민참여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공중화장실 범죄 '안심 비상벨'로 지킨다

정읍시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화장실 안심 비상벨을 175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여성 화장실 안심 벨은 위험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정읍시청과 경찰서를 긴급 호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비상벨을 말한다.

비상벨이 울리면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리며 담당 상황실로 연결되어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고 신속하게 경찰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019~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 및 터미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공서 등에 설치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고 표지판 설치와 실내 안내 방송을 통해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 벨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 시스템 기기다"며, "장난으로 눌러도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전 실·과·소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농업의 어려운 현실 함께 극복!

부안군, 농촌일손돕기추진단 운영

부안군 전 실·과·소가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특히 부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돕기추진단'을 운영하고 독거농가 및 기초생활수급자 농가 등 노동력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부안군 전 부서별로 불 영농철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마을·양파·오디 수확, 과수 적과, 모내기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 보여주기식·행사성 위주의 농촌일손돕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일손돕기가 될 수 있도록 인원도 소규모로 조직화하고 도시락은 물론 작업도구까지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와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지난 12일 부안군 줄포면 목종마을 공재전씨 오디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에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 공재전씨는 "한창 일손이 모자라 걱정하던 차에 부안군청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함께 작업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자칫 수확 시기를 놓칠 경우 오디가 바다에 떨어져 상품성이 하락하게 되면 농가의 시름이 커질 텐데 직원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고충을 이해하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농업정책과 직원 15명도 13일 부안군 동진면 증산마을 강충회씨 농가의 오디밭(635㎡)을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으며 안전총괄과와 상서면 직원들도 상서면 유정마을 양파재배 농가를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부안군 줄포면 역시 지난 12~13일 2일간 본격적인 오디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디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탤다.

이번 일손돕기에서는 오디 수확과 함께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폄소 실천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당 농장주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었는데 진심으로 마음으로 일손을 도와주시는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워했다.

이날 일손돕기에서는 오디 수확과 함께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폄소 실천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당 농장주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었는데 진심으로 마음으로 일손을 도와주시는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워했다.

고창군, 스포츠 대회 유치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고창군이 최근 잇따른 큰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족 및 관람객이 며칠간 고창에 머무르며 식당과 숙박업소 등을 이용해 고창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를 시작으로 '2019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규모급 스포츠 대회를 연이어 열었다.

특히, 도민체전 기간 고창에는 선수와 가족 등 5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길게는 일주일 이상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읍을 중심으로 식당과 숙박업소 등을 가득 메웠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3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이번 기회를 스포츠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실제 하반기 전국우수대학 초청 축구대회, 1700여명이 참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등 굵직한 전국 대회가 연속해

예정돼 있다. 각종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요인으로 최신식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전담팀 신설, 대회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 등이 있었다.

유기상 군수는 "대규모 체육대회를 통해 스포츠 수도로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머무르고 싶은 체육·관광도시로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스포츠 보급 및 스포츠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위도면민의 날 화합 큰잔치 성황리 마쳐

부안군 위도면은 13일 위도 해수욕장 야외공연장에서 제23회 위도면민의 날 화합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김중회 국회의원, 부안군의회장 및 의원, 각 기관단체장, 재경위도향우회,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보냈다.

식전행사에서는 어르신 건강 체조 공연, 위도 락밴놀이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민속놀이 행사와 초청 가수 및 색소폰 공연, 주민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주민이 참여하는 즐거운 행사로 진행됐다.

기념식 행사에서는 애환장상 재경향우회 신광균씨, 공로장상 진리마을 김주희씨, 효열장상 시름마을 지희아씨 등에게 면민의 장을 시상했다. 이어 화합행사에서는 초청가수 및 민요가수가 주민들과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주민노래자랑 및 경품추첨 등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 행사가 됐다.

고선우 위도면장은 "면민 모두가 참여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의 행사로 면민이 하나 돼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한빛원자력 본부를 방문했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현장점검 실시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지난 12일 최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고창군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하여 한빛원자력 본부를 방문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달 10일 모더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돼 원자로 열출력이 기준치인 5%를 초과하여 18%까지 급증하였음에도 12시간 가까이 더 가동한 후 원자로가 수동정지 하여 군민의 기쁨을 슬어내리게 했다.

위원들은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은 아주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며,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간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된 한빛원전 1호기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중단할 것과 즉각적인 안내문자 발송,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요구했으며, 원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시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에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라고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부안군은 지난 7일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9월 30일까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1472명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점검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예방활동으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6명이 가구를 직접 방문 및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세심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무더운 시간대의 야외활동 자제와 휴

식을 유도하기 위한 휴식 시간제 안내 및 경로당 이용 장려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철을 지낼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긴급개입 및 취약대상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르신의 욕구와 거주 상태에 따라 관련부서 연계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contents listed.